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광장.



파리 퐁피두센터 인근의 광장. 중앙에는 예술품이 자리하고 잔디를 주위에 둘러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배려했다.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32> 유럽편 '도시와 광장'

1년내내 콘서트·축제...광장 자체가 '관광상품'

유럽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에는 광장이 있다. 사람들이 만나고 모여들어 여유롭게 즐기고, 거닐며, 구경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 도시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광장은 그 규모를 달리하며 도심 곳곳에 들어서 있다. 광장에는 동상, 분수대 등이 있고, 그 주변을 중세건축물이 둘러싸고 있으며, 모여드는 인파를 대상으로 하는 점포들이 즐비하다. 또 약속의 장소이자 전시·공연 공간인 이 광장에서는 밤이 정하는 모든 행위가 허락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물러날 수 밖에 없다.

자동차를 위한 교통광장이 고작이고, 신도심에 형식적으로 그려지는 광장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유럽 도시들의 광장에서의 자유, 여유, 다양성 등은 문화적 충격이었다.

영국 글라스고의 관광버스 출발지는 언제나 조지(George)광장이다. 이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광장이 글라스고의 얼굴이며 상징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붉은색 바닥 때문에 레드 광장이라고도 하며, 도시의 중심가에 빅토리아시대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다. 광장 안에는 빅토리아 여왕, 앨버트 왕자, 윌터 스콧 경 등 유명인사의 동상이 자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글라스고에는 이 광장 외에도 상인(Merchant)광장 등이 있다. 1년 내내 콘서트·축제·전시·각종 캠페인 등이 이어지고 매년 초에 열리는 펠트

뮤직 페스티벌 시즌에는 이 광장부터 로열콘서트홀까지 아름다운 햇빛 행진이 펼쳐진다. 새해를 맞는 공식 행사도 열리며, 겨울에는 광장에서 스케이트도 즐길 수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는 그랑(Grand) 광장이 있다. 폭 2~3m에 불과한, 흉함요리점과 기념품 판매점들 사이를 비집고 가면 어느새 넓게 터진 웅장한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광장 주위에는 유럽 중상주의 도시의 전성기를 짐작하게 하는 시청사, 왕의 집, 길드하우스 등 고딕과 바로크양식의 건축물들이 있으며, 바닥에는 돌이 촘촘하게 깔려 있다. 짝수 해 8월 14~16일까지 열리는 꽃 카펫(Flower Carpet) 이벤트가 2년에 한번씩 열려 광장 전체를 꽃으로 수놓는다.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동

서로 110m, 남북으로 70m의 규모다. 높이 96m의 첨탑이 솟은 시청사, 왕의 집, 길드 하우스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광장 주변에는 노천 카페와 주점 등이 즐비한데, 벨기에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각국의 언어로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밤이 되면 광장에 모여 춤을 추거나 열차놀이를 하는 등 젊음을 뽐내던 이들은 자정이 되면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벨루르(Bellecour) 광장은 리옹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중앙에는 신고전주의 조각가 프랑수아 레모가 만든 루이 14세의 기마상이 있다. 시민, 관광객들의 약속장소로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광장 주변에는 음식점, 상점, 서점 등이 즐비해 있고 여행객들을 위한

도시 중심가에 분수대·역사 건축물·점포 등 즐비 시민·관광객 어울려 여유 즐기며 각국 문화 소통 전시·공연·만남의場...끝없는 인파에 사철 북적



프랑스 리옹의 벨루르 광장에서 공연중인 인디언 팀. 뒤로 보이는 것이 유명한 루이 14세 기마상이며, 바닥이 모래라는 점이 특이하다.

여행안내소도 설치되어 있다. 손강과 론강 사이에 있으며, 생 텍쥐베리 동상도 있다. 특이한 것은 광장의 바닥이 모래라는 점이다. 이 광장을 찾았을 때 인디언 복장의 팀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위로 1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그들을 구경했다.

손강과 론강 사이에는 자코뱅(Jacobs) 광장도 있다. 주변에는 오랫동안 상업이 번성했던 지역임을 알려주는 상공회의소 건물이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광장과 분수대, 네덜란드 덴 하그(헤이그)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작은 광장,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옛 것과 지금의 것을 적절히 표현해 놓은 도심 광장 등이 인상적이었다. 또 모든 유럽 도시는 중세 성당이나 현대식 건축물 등의 앞에는 어김없이 모두가 즐기고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광장을 만들어 놓았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7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문화관광축제 Korea BeInspired

the 13th 김제지평선축제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감동속으로, 사람과 하늘과 땅의 어울림!

2011.9.29 ~ 10.3 (5일간)
장소:전북 김제시일원 (벽골제 중심)

시간이 멈춰버린 체험여행

- 참살이 쌀 체험마당
- 미니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 벼고을 문화유산 생생체험
- 명인학당 선비문화체험
- 황금들녘 우마차 여행
- 황금들녘 메뚜기 잡기
- 황금들녘 트랙터 여행
- 지평선 전통 공예체험

다함께 만드는 대동 어울림

- 제13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 9.29(목) 18:00~19:30
- 새만금 도전 333! 가장 큰 락 모자이크 만들기 10. 1(토) 14:00~15:30
- 새만금 지평선 테마 연날리기 9.29(목)~10.3(월) 16:00~17:00, 19:00~21:00
- 벼고을 입석줄다리기 9. 29 14:00~15:30 10. 2 14:00~15:30 10. 3 13:00~14:30
-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9. 30 15:00~16:30 10. 1 15:30~17:00 10. 2 15:00~16:30
- 벽골제를 밝히는 쌍룡햇불놀이 10. 2 20:00~21:30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에

테마가 있는 가을밤 음악여행

- 개막 축하공연 9.29(목) 19:30~21:30
- 새만금 지평선 가요제 9.30(금) 19:00~21:00
- 가을밤 추억의 7080 콘서트 10. 1(토) 19:00~21:00
- 지평선 아리랑 열린음악회 10. 2(일) 18:00~20:00
- 지평선 호사랑 음악회 10. 3(월) 16:00~18:00

주관: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